

광주, 현안 담긴 대선공약 5개 정당 건의

인공지능 모델시티·문화도시청 설립·5·18헌법 수록

광주시가 인공지능(AI) 도시 건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의 대선 공약을 5개 원내정당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분산에너지 허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시대, 대자보도시 실현을 위한 교통인프라 구축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대선공약을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 등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가 지역 발전을 위해 발결한 대선공약은 '인공지능 모델시티-더

브레인(The BRAIN) 광주 조성' 등이 담겨있다.

세계 인공지능 시장 장악을 위해서 '속도' '집적'이 승리의 요소라 판단하고 차세대 AI모델 개발에 필요한 최소 10만장 이상 GPU가 집적된 초거대 AI컴퓨팅센터를 광주에 조기 구축하고 인공지능전환(AI) 실증밸리 사업(AI 2단계) 추진을 구상했다.

또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300만평 일원에 인공지능이 융합된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기업 등에 필요한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넷제로(Net-Zero) 분산에너지 허브 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실증단지 조성' '배터리 모듈·시스템 특화단지 조성' 사업도 포함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가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청' 신설과 함께 올해로 개관 10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발전소'로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 융합 콘텐츠화기술(CT)연구센터 등의 설립 계획도 세웠다.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대·자·보) 도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

철도 광천상무선 신속 건설, 도심형 공교통(UAM) 등 미래모빌리티 연계한 광주중정역 미래형 환승센터 조성,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확장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국정 과제로 반영해야 할 정책공약으로는 민·군 통합공항 조성 과 마북동 탄약고 이전 등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군사시설 이전기구 설치'와 광주·전남·전북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남도의 맛과 멋을 살린 글로벌 관광거점 육성 등을 제시했다.

영·호남 공약으로는 광주선 도심 구간 지하화를 포함한 달빛철도 신속한 추진 등을 공약에 포함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분산에너지 특화모델 추진

동구·남·북구...도심형 분산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실증

광주시가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지역에 최적화된 분산에너지 모델을 구축한다.

광주시는 시청 비즈니스톱에서 에너지공기업, 에너지기업, 협력기관 등과 '광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분산에너지는 태양광 등의 에너지 시설을 설치해 지역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발전설비로 전력을 생산해 송전·배전 설비를 통해 각 지역으로 보내는 중앙 집중형 에너지 공급 시스템의 에너지 손실, 송전설비 비용, 지역별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시는 협약을 토대로 광주 인공지능(AI)기업과 협약기관의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기

반으로 한 분산에너지 특화모델을 추진한다.

또 동구, 남구, 북구에서 신산업 활성화형 모델로 도심형 분산에너지 마켓플레이스 실증을 추진한다.

동구는 1MW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해 RE100 수요기업과 전력거래를 실증하고 RE100 메가스테이션을 활용해 분산에너지 통합플랫폼을 운영한다.

남구는 신효천마을 태양광발전소를 활용해 마을주민 간 전력거래와 인근 공동주택 내 전기차충전기에 전력공급을 추진한다.

북구는 1MW 태양광발전 전력을 10MWh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해 인근 기업과 거래하는 비즈니스모델을 실증한다. 광주시는 산업부에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 구직활동 청년 역량강화 최대 300만원 지원

광주시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025년 광주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 참여자 830명을 10월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사회 진입을 돕고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원자를 다음달 최종선정한 후 6월부터 구직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씩 최대 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취업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진로 설정과 구직계획에 도움이 되는 취·창업준비형, 역량강화형, 기업탐방형 등 새롭게 구성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직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위해 사업 참여 중 취업을 하거나 창업에 성공하면 취·창업 성공수당을 50만원 지원한다.

구직활동비와 취·창업 성공수당을 포함해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광주 분산에너지 업무협약 9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톱에서 강기정 시장이 박상형 한전KND(주) 사장,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유병천 ㈜레플러스 대표, 전석 ㈜그리다에너지 대표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특화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 친환경車 기반 '넷제로 시티' 쟁점음

과기부 공모 선정돼 2026년까지 29억5000만 원 투입 예정

전남도가 전기차등 친환경 자동차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할 때 자원으로 활용해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친환경차 기반 '넷제로 시티'(Net Zero City) 실증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전남은 전국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량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자연조건에 따른 전력생산량의 변동성, 공급 과잉과 부족 현상 등 전력관리의

어려움이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기반으로, 전기차를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로 활용하는 넷제로 시티 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추진 중이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로 2026년까지 3년 동안 총사업비 29억5000만 원(국비·지방비 각 13억5000만·민간 2억5000만)이 투입된다.

넷제로 시티 실증사업은 전기가 배터리에 전력을 저장하고, 필요 시 건물이나 시설에 재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는 효율적 에너지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핵심은 전기차와 전력망 간 양방향 에너지 전송을 가능하게 하는 V2G(Vehicle to Grid)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시설로 공급하는 것이다.

전기차 소유자는 충전 후 남은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차량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고, 건물 운영자는 보다 저렴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김 호 기자

'자율주행 안전 평가 인증센터' 건립 본격화

광주시 최신 주행 장비 21종 구축...8월 착공·내년 6월 완공

광주시가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자율주행 안전 성능평가 인증센터' 실시설계를 이달 중 완료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오는 8월 착공, 내년 6월 완공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인증센터에는 인지(센서)분야 6종, 제어분야 4종, 통신분야 6종, 자율주행 평가 장비 5종 등 최신 자율주행 장비 21종이 구축된다.

인증센터가 구축되면 기업의 미래자동차 연구 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윈드실드 내부 장착형 200m급 장거리 라이다 개발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운전권 전환에 대응해 안전을 높인 조향휠 어센블리 개발, 차랑-교통인프라 간 정보공유용 로드사이드 유닛(RSU) 개발 등이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자율주행 및 시뮬레이션,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차 부품 제조공정, 자율주행차 부품 표준 및 신뢰성 확보 등 재직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이다.

/김도기 기자

광주, 주택·아파트 미니태양광 지원

냉장고 전기료 절감 효과

광주시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2045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주택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미니태양광 보조금은 자부담 비율이 기존 30%에서 20%로 경감됐으며 기존 설치세대가 추가설치할 경우에도 지원한다.

미니태양광(390~445W) 1개소 설

치비는 84만원~95만원으로 광주시가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가구는 20%(16만8000원~19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단지 내 다수 가구가 참여할 경우 가구당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8~9%(6만8000원~9만원)의 자부담만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현재 일반 4인가구 기준 월평균 전기사용량은 약 307kWh(6만90원)로, 미니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월 45kWh 내외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조선주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FAX:062-362-0078

이메일:honamnews@hanmail.net